

# 日帝時代 鐵道官舍의 空間構成 및 變容類型 研究

- 慶州 鐵道官舍地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and Transfiguration of the  
Railway Official Residence in the Colonial Empire of Japan

- Focusing to Railway Official Residence in Kyoungju -

\* 李 喆 永

Lee Chul-young

\*\* 尹 在 雄

Yoon Jae-woong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Korean changed and applied the railway official residence space constructed by the Japanese, when they occupied these railway official residence space after liberation from Japan, and spec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culture and residence space by analysing the difference in important life style, as well as element of change in important residence spaces according to modernization. In addi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means of research on the form and pattern, visual anthropological method by photograph and direct observ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idence space at Kyoungju constructed by the Japanese on the basis of the culture has been changed and applied to the life style of the Korean when the Korean occupied these Japanese style residence space.

Then, it seems that the change of the Japanese style residence was caused by both difference in the life patter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life.

---

\* 정회원, 효성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 정회원, 효성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1. 序論

歷史的 事實들은 單 一回的이고 동시에 相互聯 關係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전개된다. 歷史研究 는 과거에 되어 온 것을 파악하여 앞으로 되어 갈 것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가 어떻게 과거에서 발전해 왔는 가를 관찰하고, 이 과정을 미래로 投射하여 추 측하는 方法으로 사용할 때 유용하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다양하고 복잡한 住居 類型은 近代를 바탕으로 전개되며, 근대는 그 이전의 住居文化를 규명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住居를 정확히 파악하고 未來 住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開港 (1876)이후 外勢에 의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外來樣式의 住居 즉 近代住居에 대한 연구가 무 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이 시기에 流入된 外來 住居文化 는 住居建築의 近代化와 함께 韓國 住居文化 발 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음은 물론 현재에도 傳統住居文化와의 충돌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住居觀을 형성시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들 近代住居는 그것이 自生的인 受容態勢를 갖 추지 못한 시기에 流入되었거나 日帝下의 他律 的인 移植이었다는 점에서 住居史의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파괴되고 關聯資料는 散失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日式住居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반감과 西歐文化에 대한 동 경 등으로 인하여 도외시되고 있으나 우리의 近代化過程이 日帝植民地 半封建體制下에서 西歐 文物의 流入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日本文化 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先行된 몇몇 近代 住居建築에 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아 직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慶州 鐵道官舎에 대한 現場精密調査를 시도하여 그것 이 지니고 있는 配置 및 空間構成의 특질은 무 엇이며, 이것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 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鐵道官舎의 配置方式은 어떠한 것인가
- 2) 鐵道官舎의 平面構成形式은 어떠한 것인가
- 3) 居住者의 변화에 따라 공간은 어떠한 類型 으로 變容되었는가

## 2. 理論的 背景

### 1) 鐵道官舎의 建立背景

日式住宅의 유입과정에서 생성된 官舎制度는 住宅難 해결과 업무의 能率化 외에 韓人과의 격 리 거주를 통해 그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식 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京仁 京釜線 철도 敷設과 더불어 건립되기 시 작한 鐵道官舎는 주요 사무소 소재지에는 集團 官舎로, 中間驛에는 대개 驛舎에 연속하여 施設 하였다. 철도관사의 특징 중 하나는 等級制로 서, 이는 臨時軍用鐵道監部에서 관사를 3等부터 8等으로 설정하는 基準設計案을 마련 이를 실시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등급별 驛官사가 실시 된 곳은 서울 龍山과 平壤이었으며 기타 各驛에 는 각기 필요한 등급의 관사가 순차로 시설되었 다.

관사의 구조는 木造單層으로, 지붕에는 시멘트 기와 또는 아연철판이나 석면슬레이트를 이었으 며, 바닥에는 다다미를 깔 것이 대부분이었다. 寒冷地方에는 防寒을 위하여 외벽을 雜石粘土로 쌓은 두꺼운 중국식 벽으로 만들고 창문은 유리 및 종이障子の 이중창으로 하였으며, 온돌 혹은 房爐를 설치하였다. 이 중국식 벽은 후에 雨雪 凍害 등의 害가 있고 또 그 때문에 붕괴되었으 므로 점차로 비늘板壁으로 바꾸었다가 그후 다 시 防濕 및 防寒 防火를 고려하여 철망을 입힌 시멘트몰탈칠로 改修하였다.

### 2) 先行研究 考察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영호(1988)는 현재까지 부산시에 남아 있는 개화기부터 1960년대까지 건립된 일식 및 한식주택을 대상으로 주거문화의 自生的 발전이 라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住空間 變容過程을 고 찰하였다. 그는 주거생활의 변용을 생활상이나 가

족내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고 두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60년대 이전에는 재래의 생활양식을 유지 혹은 적응하려는 단순 변용이나 보수지향적 변형이 행해져 거주면적의 증대, 부엌과 다다미방의 개조 및 분리가 나타나고 60년대 이후는 부엌의 입식화, 욕실의 현대화, 거실 설치가 일어나는 근대지향적 변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우동주(1991)는 1930년대 말 일본인 철도 공무원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에 지어진 20평 2호 연립관사를 대상으로 한, 공간변용 연구에서 다다미의 온돌화, 부엌공간의 개신, 변소 욕실 등 위생공간의 위치변경 및 개조 등을 밝혔다.

정도(1992)는 진해, 목포, 광주, 군산, 대구 등에 남아 있는 일식주택을 조사하여 단독주택형, 상가형 연립주택으로 유형분류한 후 주거공간의 변화요인을 한일 주양식의 차이에 의한 요인, 각 세대의 생활방식 및 주요구의 변천에 의한 요인, 설비의 근대화에 따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박경옥(1993)은 19세기말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일본 중류주택의 변화과정을 고찰한 다음, 울산시에 남아 있는 일식주거의 공간변용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는 근대화에 따른 재료 및 설비의 발달로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부엌, 욕실, 화장실 등 시설설비 공간과 공간영역이 정해져 있어 변화가 느리게 일어나는 방, 마루 등의 거주실 공간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한일 주양식의 차이에 의해 일식주택의 접객중심형(자시키행형) 평면이 가족중심형(안방생활형) 평면으로 재구성 되었다고 보았다.

### 3. 研究方法

본 연구는 일제시대, 경북 경주시 황오동 85, 144번지에 일본인 철도공무원을 위해 2호 연립형식으로 건립되었던 집단 주거지를 대상으로 관사의 배치방식, 평면구성형식, 공간변용유형 등을 현장조사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예비조사 결과 현존하는 관사의 수<sup>1)</sup>가 많아 단지 전체의 배치계획 및 등급별 공간구성체계를 파악할 수 있고, 둘째 각 住戶들이 거주자의 생활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있으므로 空間變容에 대한 類型分類가 가능하며 셋째, 도시화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철거 신축되는 주거가 늘어나고 있어 실측조사를 통한 자료의 蓄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조사는 조사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조사대상과 관련된 각종 資料나 舊 登記簿謄本 등을 閱覽하였다. 현장조사는 1993.3 - 1994.6에 걸쳐 3차례 실시하였다. 1次 예비조사에서는 가족의 현존상황 및 거주자의 일반사항 등을 파악하였고, 2次 본조사에서는 각 건물의 배치 및 평면도 작성과 사진촬영, 거주자와의 면담 등을 행하였다. 이러한 1,2次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原形 平面의 追跡 復元, 變容 類型의 분류를 실시하였다. 특히 原形 平面 復元의 경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경주 철도관사와 같은 유형으로 1942년경 건립된 밀양군 상동면 금산리 소재(유천역 부근)의 관사 2) 4棟을 보완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관사의 현 거주자에 의한 공간변용 분석은 단위공간별 개조부분에 대한 계량적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공간구성에 주목하여 그 변용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현존하는 60여호의 관사중 28戶가 사용되었는데 等級別 관사 수는 3等 - 3戶, 7等甲 - 12戶, 7等乙 - 10戶, 8等 - 3戶 이다.

註1) 관사의 수는 건립당시 80여호에 이르렀으나, 신축 및 개축 등으로 여러가구가 없어지고 현재는 60여 가구가 남아 있다.

註2) 이 지역에 남아있는 철도관사는 지역적 落後性과 거주민의 經濟力이 微弱하여 아직도 바닥에 다다미가 그대로 깔려 있는 등 原形을 잘 간직하고 있다.



〈그림1. 조사대상 지역의 원경〉

#### 4. 調査結果 및 論議

##### 1) 配置形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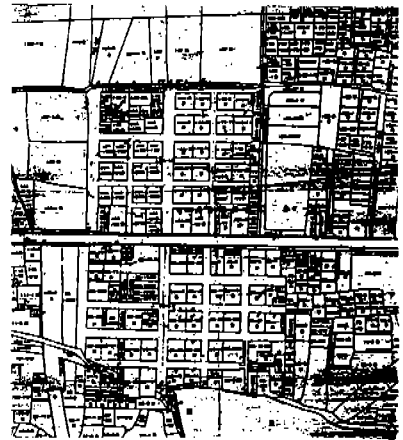
대상 주택지는 경주 중심지역인 慶州驛에 인접하여 가로 약 200m, 세로 약 280m 규모의 평평한 대지에 格子型으로 계획 배치되었다. 도로체계는 주거단지의 지적도(그림)에서와 같이 8m 도로를 동서와 남북방향으로 놓고 2戶 聯立의 주호 사방으로 6m 넓이의 도로를 둘러 높은 점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같은 도로체계는 1941년 朝鮮住宅營團에 의해 건립된 서울 文來洞 舊 營團住宅地나 1937년 부산 연산동에 철도 관사로 지어진 集團住居地에서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住戶配置는 團地 중앙의 동서도로를 중심으로 등급에 따라 북서측 구역에는 8等 관사를, 북동측 구역에는 3等 관사와 7等 관사를 각각 배치하였으며, 남측 구역에는 7等甲 및 7等乙 관사를 2戶 聯立으로 배치하였다. 거주민의(85-39戶) 증언<sup>3)</sup>에 의하면 “현 철도관사는 1930년대 중반 건립에 착수하여, 북측 구역에서부터 점차 남측 구역으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또한 “주택 재료나 구조에 있어서도 건립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먼저 건립된 북측 구역 관사의 경우, 외벽은 일본에서 들어온 삼목을 사용, 板壁으로 하고 지붕은 함석이나 슬레이트로

註3) 일제시대 경주 철도역 건축분소장을 지녔으며, 현재 경주시 배드민턴 지회장으로 있는 李貞雨(73세)씨와의 면담에 의함.

이었다. 조금 뒤에 건축된 남측 구역 관사는 防寒 및 防火를 고려하여 외벽을 몰탈뿔칠로 마감하고, 지붕은 현지에서 제조한 일식 시멘트 기와를 얹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조사 결과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團地內 전 住戶는 북쪽에 현관을 두고 남측에 前庭을 갖는 正南向의 배치를 하였으며, 4戶 공용의 상수도시설을 하였다.

6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에 이루어진 도로망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으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몇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중앙의 동서도로가 단지를 관통하는 통과도로로 기능이 바뀐에 따라 그 가로변의 관사들은 대부분 헐리고 2-3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 신축되었다. 또한 거의 모든 住戶에서 단지 조성 당시에는 없었던 담장을 두러거나 부속사를 증축하여 앞마당을 包圍함으로써 가로의 폐쇄감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림2. 對象 住居地의 位地形態와 街路網〉

##### 2) 平面構成形式

조사 대상지에 건립되었던 철도관사의 평면유형은 거주민과의 면담 및 실측조사 결과 3等, 7等甲, 7等乙, 8等 관사의 4종류가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日本 鐵道局이 관사 건립계획에 따라 등급별 표준설계도를 작성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各驛의 요구조건에 맞게 필요 관사가 선택적으로 지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사된 等級別 住戶數는 3等 관사가 3戶, 7等甲 관사가 12戶, 7等乙 관사가 10戶, 8等 관사

가 3戶 인데, 이들 관사의 기본 평면은 대부분 中複道型<sup>4)</sup>으로 되어 있다. 각 等級別 관사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3等 관사는 북측 중앙에 玄關을 두고 그 좌측으로 다다미 8疊을 간 接客空間인 자시키(座敷)와 가족 생활 공간인 차노마(茶の間)를 連接配置한 쓰즈끼마(續き間)型<sup>5)</sup>으로 구성 하였다. 자시키의 내부에는 도꼬노마(床の間)와 지가이다나(違い棚), 나게시(長押) 등을 설치하여 격식을 갖추었으며, 차노마에는 일종의 불박이 벽장인 오시이레(挿入)를 2칸 설치 하였고 兩 室間은 4짝 미서기문(후스마)으로 처리하여 공간의 개방성을 높였다.

玄關 우측으로는 3疊 크기의 하녀방(女中室)과 변소를 두고 그 앞쪽에 욕실과 부엌을 배치하였다. 욕실에는 가마솥 모양의 철제 욕조를 시설 하였으며, 부엌 전면에는 여닫이문을 달아 前庭과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等 관사의 거주 대상은 驛 組織上<sup>6)</sup> 驛長이나 各級 分所長과 같은 3급 공무원이었다.

各級 長 아래 조역이나 소속장(4급 공무원)에게 배당된 7等 관사는 甲, 乙 두 형이 있는데 가족의 수에 따라 적합한 주택이 배급되었다.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다만 甲型이 乙型에 비해 자시키공간이 2疊 더 클 뿐이다.

이들 4種의 관사 중 가장 규모가 작은 8等 관



<그림3. 増 改築된 官舎의 外觀形態>

註4) 중앙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各 室들이 남북으로 配列되는 椀집형으로 일본에서는 메이지 41년(1908)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中流階層의 주거로 채용되었다.

型別	圖面	規模 및 居住對象
3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坪數: 25.7坪</li> <li>○ 室構成: 居住室 4間 (8疊, 6疊, 6疊, 3疊)</li> <li>○ 居住對象: 驛長, 各級 分所長</li> </ul>
7等 甲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坪數: 20.8坪</li> <li>○ 室構成: 居住室 3間 (8疊, 6疊, 4.5疊)</li> <li>○ 居住對象: 助役, 所屬長</li> </ul>
7等 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坪數: 18.9坪</li> <li>○ 室構成: 居住室 3間 (6疊, 6疊, 4.5疊)</li> <li>○ 居住對象: 助役, 所屬長</li> </ul>
8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坪數: 14.5坪</li> <li>○ 室構成: 居住室 2間 (6疊, 6疊)</li> <li>○ 居住對象: 係員</li> </ul>

<그림4. 鐵道官舎의 等級別 平面構成形式>

사는 일반 係員들에게 공급되었는데 6疊 다다미 방이 2개 마련되어 있다.

집의 규모가 작은 만큼 도꼬노마나 부엌에 설치된 불박이 칸장의 크기도 半疊가량 줄었다. 이상에서 나타난 철도관사의 공간구성상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각 실들이 벽체로 고정되지 않고 미닫이 문으로 처리되어 실의 轉用

註5) 자시키와 쓰즈끼마(次の間), 차노마 등의 室들이 후스마로 연결되어 있는 형으로 자시키에서 결혼식, 장례식, 정월행사와 같은 의식이 행해질 때 두 공간 사이의 문을 떼어 내고 통합하여 사용함.

註6) 당시 慶州驛은 釜山 鐵道局 管轄로 조직 체계는 驛, 기관차사무소, 보선사무소, 객화차분소, 건축분소, 전기분소 등이 橫적으로 구성됨.

선이 강하고, 둘째 가구대신 붙박이장인 오시이 레를 두어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셋째 북측에 현관을 설치하여 출입하고 있으며, 넷째 욕실 변소 등이 內室化되어 있고, 다섯째

바닥구조가 온돌 대신 다다미로 되어 있는 점 등이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의 전통주거나 생활양식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 해방이후 거주자의 변화에 따른 공간변용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思料된다.

### 3) 居住者의 변화에 따른 空間變容 類型

조사대상 주거는 건립 이후 가족구성, 주생활양식, 경제적 요인 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용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변용양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原形을 유지하고 있는 型 (A형)

이 유형은 증개축 등의 공간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일식주거의 원형복원이 가능하다. 이 유형의 평면적 특성은 첫째, 바닥 구조가 다다미에서 온돌로 바뀌고 부엌바닥이 방바닥보다 50 - 60cm 정도 낮추어져 전통 한옥의 부엌 형태로 변형되었다. 둘째 기존의 현관은 형태만 유지하고 있을 뿐 수납공간으로 용도가 바뀌고 실제 출입은 남쪽 부엌의 여닫이문을 사용하고 있다. 난방방식과 출입방식의 변화는 한국인이 거주하면서 가장 먼저 변용된 부분으로 이것은 한일간 주생활 양식의 차이에 의한 변용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증개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가족구성, 생활양식, 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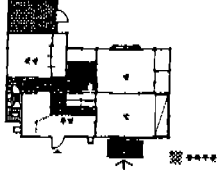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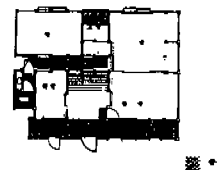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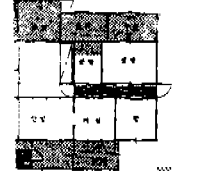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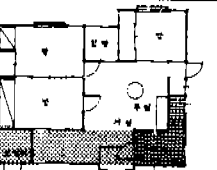
#### ◦ 뒷마루가 증축된 型 (B형)

여러 부분이 전통 한옥형으로 변용된 주거이다. 이 유형의 특성은 주거의 남쪽 전면에 뒷마루가 부설되고 부엌 상부에는 다락이 설치되며, 욕실과 현관은 각각 찬방, 고방 등으로 변용되는 등 전통주택의 주요 공간요소들이 추가되는 것이다.

#### ◦ 南側 玄關 導入型 (C형)

서구문화의 유입과 근대화에 따라 비교적 많은 부분이 서구식으로 변용된 주택으로 남쪽 전면

에 현관이 설치된 형이다. 이 유형의 평면적 특성은 부엌에 인접하여 거실이 설치되고 부엌이 입식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화장실은 주거동에서 멀리 떨어져 남쪽의 앞마당에 위치해 있다.

類型	圖 面	類型別 空間 變容 特性
原型維持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다미 - 溫突化</li> <li>◦ 玄關 - 收納空間</li> <li>◦ 부엌당대 - 바닥레벨 下降</li> </ul>
前退増築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退부설</li> <li>◦ 부엌상부 다락설치</li> <li>◦ 욕실 - 찬방으로 용도변화</li> <li>◦ 현관 - 고방으로 용도변화</li> </ul>
玄關導入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側前面에 玄關설치</li> <li>◦ 부엌의 立式化</li> <li>◦ 便所를 본체와 분리설치</li> </ul>
西歐式改造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洋式的 化粧室 및 浴室 도입</li> <li>◦ 부엌공간의 D.K 化</li> <li>◦ 食器分離</li> </ul>

<그림5. 空間變容 類型>

#### ◦ 西歐式으로 改造된 型 (D형)

여러 차례의 증축과 개축을 거치면서 외관과 평면형이 서구식으로 개조된 형이다. 이 유형의 평면적 특성은 실내부 공간에 洋式的 화장실과 욕실이 도입되고 부엌은 취사와 식사를 겸한 DK 형으로 변형되었으며, 각실의 바닥은 동일 레벨(level)상에 있다. 이 형은 조사 대상의 주택들 중 주생활의 현대화와 합리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실의 기능적 분화, 식침분리, 독립성 확보 등을 고려한 주택이다.

## 5. 結論

日帝 強占期에 일본인 철도공무원들을 위한 집단주거지로 건설되었던 경주시 황오동 소재의 철도관사를 대상으로 조사연구한 결과, 얻어진 몇가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철도관사는 경주역에 連續한 방향의 평평한 대지에 격자형으로 계획 배치되었다. 주거단지 중앙부에 8m도로를 동서와 남북으로 놓고 2호 연립의 주호 사방으로 6m넓이의 도로를 둘러 접근성이 높은 가로망을 형성하였다. 團地는 8m도로에 의해 크게 4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구역마다 관사를 등급별로 배치하였다.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당시에 이루어진 가로망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으나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 가로변의 관사들은 대부분 헐리고, 2-3층 규모의 현대식 상가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2) 조사 대상지에 건립되었던 관사의 평면유형은 3等, 7等甲, 7等乙, 8等 관사의 4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철도국이 관사건립 계획을 수립, 표준설계도를 작성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各驛의 요구조건에 알맞은 관사를 선택적으로 건축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各等 관사의 기본 평면은 中複道型을 채택하여 玄關, 부엌, 便所, 浴室, 居住室 등으로 구성하였다. 관사 규모는 등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는 철도공무원들의 직급이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기 위한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3) 철도관사는 해방이후 시대와 거주인의 변화에 따라 원형 유지형, 뒷마루 증축형, 남측 현관 도입형, 서구식 개조형 등 다양한 변용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변용양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경제력, 가족구성, 주생활 양식 등과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변용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미루었다.

## 參 考 文 獻

1. 대한주택공사, 주공20년사, 1979.
2. 鐵道廳, 鐵道の歴史, 1980.
3. 金宜宰, 한국 근대 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
4. 李英鎬, 개화기 이후 한국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 부산시 목조주택의 변용양상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권 5호, 1988.10.
5. 川端貢, 朝鮮營團의 住宅에 關한 研究 - 문래동 주택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6. 姜榮煥,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技文堂, 1991.
7. 禹銅宙, 일제시대 연립형 관사의 공간변형에 관한 현장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권 6호, 1991.12.
8. 尹在雄, 대구지역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 - 형성과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1.
9. 정모, 증개축을 통해 본 일식주거의 공간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1.
10. 박경옥, 일제시대 일식주택의 변용을 통해 본 주양식의 한일 비교연구, 한국주거학회지 4권 1호, 1993.6.
11. 李喆永, 일식주거의 실내 공간변용에 관한 조사연구 - 밀양시를 중심으로, 밀양산업대학교 논문집 제1권, 1993.12.
12. 西山怨三, 日本のすまい, 勁草書房, 1976.
13. 鈴木成文, 日本と韓國の住居の近代化過程の比較考察 - 住様式の持續と變容, 住宅建築研究所, 1987.
14. 鈴木成文, 住まいの計劃 住まいの文化, 彰國社, 1988.

